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10. 20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0/13~10/17)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재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 유입되면서 환율은 1,430원대로 상승 출발 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상승폭 일부 되돌림 시현. 이어 중국의 국내 기업 미 자회사 제재 소식이 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430원대 재진입
- 중반,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연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커진 가운데 달러 약세 반영하며 환율은 하락 전환
- 후반,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곧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는 미 재무장관의 발언 등 협상 타결 가능성 부각된 점에 힘입어 1,410원대로 추가 하락. 이어 주 후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관망세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수급상 매수 우위 영향에 상승 전환 후 1,420원대 초반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30.0	1,434.0	1,416.7	1,421.2	-8.8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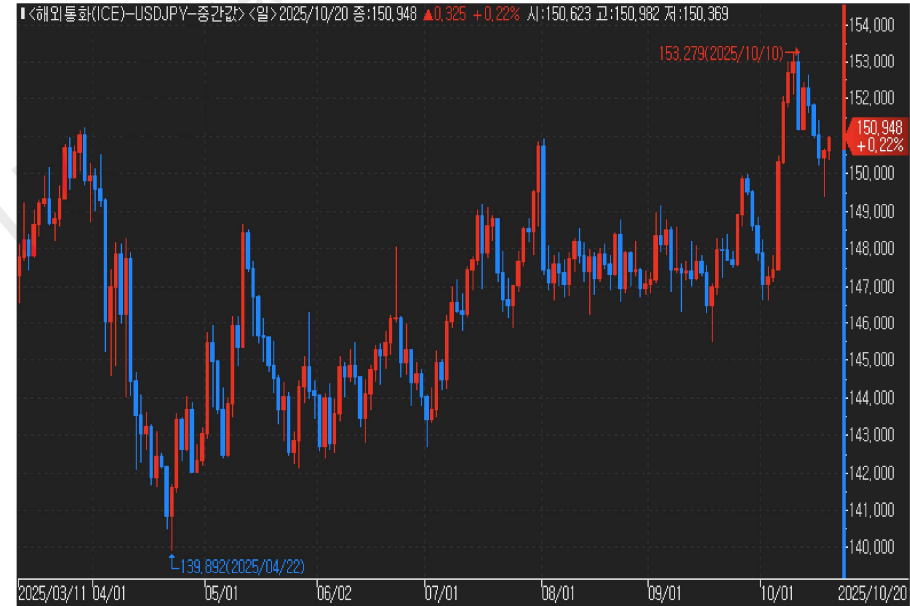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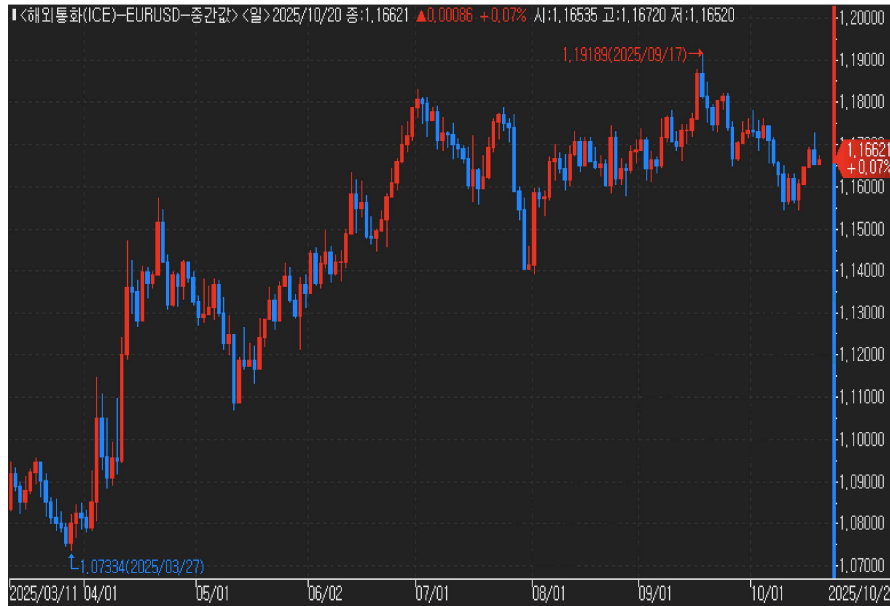
- 금주 달러원 환율은 미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방 압력이 다소 우위 보일 것으로 예상
-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대미투자 관련 불확실성 상존한 점에서 원화 약세 흐름 전환되기는 쉽지 않아 보임
- 또한, 미-중 간 무역갈등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불안감 부각될 경우, 위험회피 심리 확산되며 환율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
- 다만, 한은 금통위 예정된 가운데 부동산 문제와 가계대출 불확실성 등에 매파적 스탠스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원화 약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예상거래범위

1,415원 ~ 1,435원



유로·엔화 동향 (10/13~10/17)



유로화 동향

- 주초, 재임명된 르코르뉴 프랑스 총리의 신임 내각 발표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되면서 유로화는 약세 출발 후 1.15달러대로 하락. 이어 르코르뉴 총리가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까지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프랑스 정국 불안이 다소 진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유입된 영향으로 반등
- 중반, 재정 확장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유로화가 강해져야 한다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을 반영하며 추가 강세
- 후반, 프랑스 현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부결되었다는 소식에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일부 누그러지면서 강세 지속. 이어 주 후반, 유로존 9월 CPI가 전월보다 높은 수준 기록했으나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S&P의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에 약세로 전환 후 1.16달러대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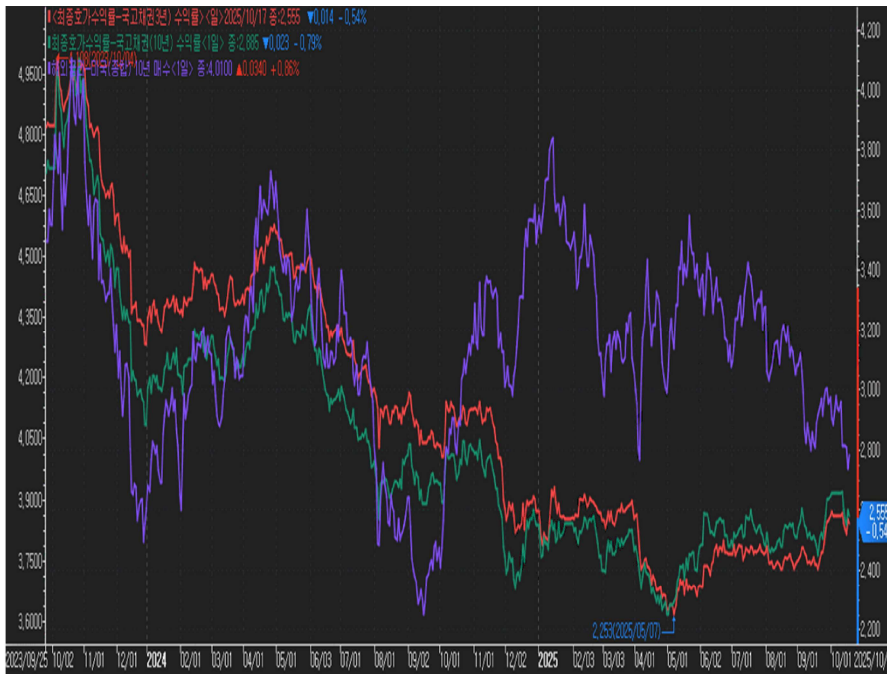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618	1.1728	1.1542	1.1654	+0.0036

엔화 동향

- 주초, 일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 붕괴로 다카이치 총리 선출이 불확실해지는 등 정국 불안 이슈 부각되자 엔화가 크게 약세 보이며 152엔대로 상승 출발. 이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되면서 연준 추가 금리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자 미 국내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 나 타난 영향으로 강세 전환
- 중반, 미국과 중국 간 무역긴장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안전자산 수요 커진 영향으로 추가 강세
- 후반, B물가 상방 리스크를 고려하여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BOJ 정책위원의 매파적 발언에 힘입어 강세 흐름 이어진 가운데 150엔대로 하락. 이어 주 후반, 미 지역은행 부실 대출 문제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 속 강세 흐름 이어졌으나, 금융완화 기조의 다카이치 총리 선출 가능성 부각된 영향으로 되돌림 보이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51.2	152.6	149.4	150.6	-0.6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0/13~10/17)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주말 사이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 우려 확대 여파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어 중국 정부의 국내 한화계 열사에 대한 미국 자회사 제재 소식 등으로 국고채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가중 속 금리 하락 추세 지속
- 중반, 파월 의장의 노동시장 악화 관련 언급 및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 발언 영향이 반영된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이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국면
- 후반 들어, 주간 서울 부동산 가격이 6주째 확대되었다는 소식 등에 따른 한은 매파 성향 우려 반영 속에 외국인 투자자의 3년 국채선물 매도 강화 등으로 상승 후, 주 후반, 미국 지방은행에 대한 우려가 불거짐에 따라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반영되며 하락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조짐 하락 폭 컸던 코스피는 트럼프 '타코(TACO)트레이드'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크게 낙폭 축소 속 출발. 이어 개장 직후 사상최고기점 뚫으며 3,650선 근접했으나, 미-중 무역 갈등 재격화 암초와 중국 정부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소식에 3,500선대 후퇴 양상
- 중반 들어, 전일 중국 정부 제재 명단에 오른 한화오션 미 자회사 위험 노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안도감 속 정부 부동산 규제에 따른 자금의 증시 이동 기대감, 기관의 순매수 확대 등으로 3,600선 재탈환하며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 달성 시현. 후반 들어, 미국과 관세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협상 타결 기대감이 크게 투자심리 강화시킨 국면. 이에 반도체 업종 외 자동차 부문 등이 호조 보이며 3,700선 돌파. 이후, 주 후반, 간밤 뉴욕증시가 미 지역은행 부실 대출 문제에 약세 마감한 가운데 경제부총리 대미투자액 관련 트럼프 설득 여부 불확실성 언급 등이 부정적 투자심리에 영향 미쳤으나, 반도체 등 대형주 쏠림 영향 속 상승 마감